두 차례나 '나홀로 승객'된 여성의 사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비보를 듣고 길을 나선 여성이 여객기 일등석에서 '전세 비행'을 하며 승무원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4일 CNN에 따르면 셰릴 파르도(59·오른쪽)는 지난달 27일 워싱턴DC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다. 80대 노모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항은 한산했다. 파르도는 "공항은 놀라울 만큼 한산했다." 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동네 식료품점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녀는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가 탑승한 여객기에 승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파르도는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온 뒤에야 자신이 나홀로 비행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승무원은 안내방송에서 "오늘 우리는 셰릴을 유일한 승객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셰릴을 큰 소리로 환영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뒤 그녀를 일등석으로 안내했다.

파르도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승무원들은 더욱 따뜻한 서비스로 그녀를 위로했다. 파르도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마지막 비행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승무원 덕에 웃으며 갈 수 있었다." 라고 전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또 한 번 뜻하지 않은 특급 대우를 받았다. 이번에도 나홀로 비행을 하게 된 것이다. 파르도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도,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나는 유일한 승객이었다. 교통안전국 직원들이 나를 보고 반가워했을 정도" 라고 밝혔다.

미 교통안정청(TSA)에 따르면 지난 3일 항공편 이용객은 12만9,763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235만 명 가까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도 잇따라 항공편을 대폭 줄이고 있지만 기존 항공편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승객만 있어도 예정대로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울상을 짓고 있다.

폭포수가 사라진 이유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높은 폭포의 물이 마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다.

에콰도르 수쿰비오스주에 있는 산라파엘 폭포는 낙차가 160m에 달하는 에콰도르 최고의 폭포이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폭포 위에는 거대한 수원인 레벤타도르 화산이 있다. 이 폭포에서 흐르는 물은 나포강과 합류한 뒤 아마존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지난 2월 초부터 폭포 상류의 낙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랜드셋8(Landsat-8) 위성이 찍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위성사진은 산라파엘 폭포에서 힘차게 떨어지던 거대한 물줄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 우주 상공에서 바라본 과거의 산라파엘 폭포 부분은 유수량이 많아 흰색으로 보였지만, 지난 2월 이후부터는 상공에서 물줄기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다.

에콰도르 환경부는 지난 2월 2일 코카 강 주변에 발생한 산사태 이후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으며, 그로 인해 폭포수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국은 폭포 주변을 통제하고 전문가들을 동원해 싱크홀이 생긴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레벤타도르 화산의 화산활동이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질학적 측면에서 해당 지역은 꾸준히 지진과 화산이 활발했던 만큼, 산사태가 현재의 상황을 유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근에 위치한 수력발전소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에밀리오 코보는 미국 환경 매체인 몽가베이와의 인터뷰에서 "산파엘라 폭포는 수천 년간 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었다. 이는 곧 댐이 강 등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 라고 말했다.

'얼룩말 무늬' 옷 입은 사육사들

아프리카 케냐의 한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이다.

아프리카 케나에서 최근 갓 태어난 새끼 얼룩말 한 마리가 사자 떼의 습격으로 어미를 잃었다. '디리아' 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수컷 얼룩말은 불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미를 잃고 염소 떼를 데리고 지나가던 한 유목민에 의해 구조됐다. 디리아는 현재 셸드릭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지난달 12일 공식 페이스북에 새끼 얼룩말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사진에서 새끼 얼룩말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보호단체의 사육사들이 얼룩말과 같은 줄무늬의 옷을 입고 새끼 얼룩말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육사들은 자신들이 얼룩말 줄무늬 옷을 입고 디리아를 돌보는 이유에 대해 "야생동물의 새끼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태어나자마자 무리 중 어떤 개체가 어미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와 함께 일단 무리에서 벗어나 새끼에게 자신의 가죽과 털 냄새 그리고 울음소리를 각인시킨다." 면서 "새끼가 어미를 인식하면 다시 무리로 돌아간다." 고 말했다. 디리아에게 어미의 모습과 냄새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얼룩말은 야생동물 중에도 모성이 강한 동물이어서 어미와 새끼 사이 유대가 끈끈하다. 하지만 디리아의 경우 어미를 잃었기에 사육사의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명의 사육사가 24시간 내내 디리아를 돌볼 수 없기 줄무늬 옷 한 벌을 만들어 디리아를 돌볼 때마다 교대로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디리아는 여러 명의 사육사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육사를 어미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무엇보다 디리아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사육사들은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나 세무 & 보험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가나 세무보험
GANA TAX & INSURANCE

실업수당 신청 • 긴급재난융자 신청 • PPP(급료보호 프로그램) 신청

가나 세무 & 보험은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리는 가나 세무 & 보험
보험고객은 세금수수료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세금보고마감 3개월 연장 : 7월 15일까지

김선광 (Kayson Kim)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beachgana@gmail.com

O : 714.827.0707
C : 714.588.3355

3008A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